

간호대학생의 유머감각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강숙^{1*}

¹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The Influence of Sense of Humor and Stress Coping Styles on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Sook Kang^{1*}

¹Assistant 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머감각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임상실습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180명의 간호대학생으로,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2024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one-way ANOVA, Pearson's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유머감각은 3.52점,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3.40점, 임상실습적응은 3.46점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적응은 전공 만족도($F=29.80, p<.001$), 임상실습 만족도($F=40.46, p<.001$), 실습동료와의 관계($t=5.05, p<.001$), 성격($t=-3.41,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임상실습 적응은 유머감각($r=.31, p<.001$), 스트레스 대처 방식($r=.4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임상실습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beta=.34, p<.001$), 스트레스 대처 방식($\beta=.29, p<.001$), 전공 만족도($\beta=.23, p<.05$)로 총 변화량의 40%를 설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략이 필요하다.

키워드 :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임상실습 적응, 간호,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the impact of sense of humor and stress coping styles among nursing students on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The study included 180 nursing students as participants, and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April 15 to 26, 2024. The collected data underw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revealed that the sense of humor scored 3.52, stress coping styles scored 3.40, and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scored 3.46.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ased on major satisfaction ($F=29.80, p<.001$),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F=40.46, p<.001$), relationships with peers in clinical practice ($F=5.05, p<.001$), and personality ($t=-3.41, p<.05$).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nse of humor ($r=.31, p<.001$) and stress coping styles ($r=.43, p<.001$). The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were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beta=.34, p<.001$), stress coping styles ($\beta=.29, p<.001$), and major satisfaction ($\beta=.23, p<.05$), explaining 42% of the total variance.

Key Words : Humor sense, Stress coping styles,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Sook Kang(skang@cnc.ac.kr)

Received June 10, 2024

Accepted August 20, 2024

Revised June 26, 2024

Published August 28, 2024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실습의 병행이라는 학문적 특성으로 보다 많은 부담을 느낀다[1]. 임상실습은 간호학 교육의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로,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2].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사회성과 책임감을 키우고, 간호전문직에 대한 적성을 검토하며 윤리적 감각을 형성한다[3]. 다수의 실습 교과목이 병원 등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해져, 스트레스 관리와 대학 생활에 대한 적응이 보다 어려워지게 된다[1]. 임상실습에서는 신체적 피로감, 타 교우들과의 경쟁에서 느끼는 정서적 긴장, 환자로부터 느끼는 비우호적 태도로 인한 자존감 저하 등의 여러 스트레스 요인을 경험할 수 있다[4]. 또한, 실습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과제의 과도함, 바쁜 일정, 학생 역할의 모호함, 이론과 실무 간의 괴리, 환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예상치 못한 상황 등도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5]. 이러한 상황들은 경우에 따라 간호학 전공에 대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한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에 잘 적응하기 위해 스트레스 관리와 대처방법을 배워야 한다. 유머감각은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데 유용한 대처방식으로 간주된다[6]. 대학생의 긍정 심리 자원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유머가 중요하다[7]. 유머는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웃음을 유발하여 정신적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경험을 촉진하며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치유에 기여할 수 있다[8]. 유머감각은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는데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1]. 높은 유머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의 깊고 다정하며 협조적이며 창의적이며 불평이 적으며 더 활발한 행동을 보인다[9]. 유머감각이 증가하면 자부심을 높이고 부정적인 자기 평가 기준을 줄이며, 지각되는 스트레스와 우울의 수준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10].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유머감각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대학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11]. 이를 통해 유머감각은 스트레스가 많은 임상실습에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지 탐색이 필요하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하며, 스트레스 대처의 궁극적 목표는 적응이라 할 수 있다[12].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각자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하는 대응행동으로,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하면 해당 상황을 인지적으로 평가한 후 적절한 대처방안을 선택하게 된다[13]. 이는 문제 중심 대처와 정서 중심 대처로 구분된다. 문제 중심 대처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효과적인 선택을 하는 반면, 정서 중심 대처는 회피, 최소화, 거리두기 등 스트레스원을 피하거나 긍정적 측면만을 선택하는 소극적인 방식이다[14].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효과적으로 다루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15].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임상수행능력이 증가하였다[16].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따라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습 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는 의사소통능력[17], 회복탄력성[18], 임상실습 스트레스, 핵심기본간호술 자신감[19], 사회적 지지[20] 등 개인의 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을 포함하여 관계를 본 양적 연구와 임상실습 적응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21] 등이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은 중요한 주제로, 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상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머감각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포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머감각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임상실습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유머감각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임상실습 적응의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임상실습 적응의 차이를 확인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임상실습 적응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임상실습 적응 간의 관계 및 임상실습 적응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위치한 1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였다.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2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필요한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유의수준 .05, 예측변수 6으로 설정했을 때 최소 표본수는 146명으로 계산되었다. 대상자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60명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성적, 종교, 경제수준,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 성격으로 구성하였다.

2.3.2 유머감각

유머감각은 Thorson과 Powell[22]이 개발한 다면적 유머 감각 척도를 Lee와 Cho[23]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유머 생성 12문항, 유머에 대한 선호도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 감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Lee와 Cho[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9이었다.

2.3.3 스트레스 대처 방식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Folkman과 Lazarus[24]에 의해 개발된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를 Kim과 Lee[25]가 번안하고 Park[26]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 하위 영역으로 문제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정서 중심 대처, 소망적 사고 대처로 각 영역은 6문

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사용하지 않음' 1점에서 '아주 많이 사용' 4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Park[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4이었다.

2.3.4 임상실습 적응

임상실습 적응은 Yi[27]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Yi[2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은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89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4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Google Forms를 사용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참여자들에게 자가 보고를 요청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약한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동의서를 사용하여 연구 참여 동의를 얻었다. 설문작성에는 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참여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분석 시에는 코드를 할당하고, 연구 데이터는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취하였다. 설문 참여자들에게는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임상실습 적응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은 Duncan test로 분석하였다. 유머 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임상실습 적응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적응의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범주형 변수는 dummy 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성별은 여성 126명(78.8%), 남성 34명(21.3%)이었다. 연령은 24세 미만 83명(51.9%), 성적은 3.5 이상 ~ 4.0 미만 53명(33.1%), 종교는 '없다' 118명(73.8%), 경제수준은 '중' 133명(8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보통이다' 82명(51.2%), '만족한다' 72명(45.0%)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이다' 82명(51.2%), '만족한다' 74명(46.3%) 순으로 나타났다.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좋다' 113명(70.6%), '보통이다' 47명(29.4%)으로 나타났다. 성격은 '내향적' 113명(70.6%), '외향적' 47명(29.4%)으로 나타났다.

3.2 대상자의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임상실습 적응의 정도

대상자의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임상실습 적응의 정도는 Table 1과 같다. 유머감각은 유머 생성 3.24±0.63점, 유머에 대한 선호도 3.97±0.53점, 전체

3.54±0.47점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적극적인 대처 3.45±0.43점(문제중심 대처 3.47±0.49점,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 3.43±0.47점), 소극적 대처 3.17±0.41점(정서 중심 대처 2.92±0.55점, 소망적 사고 대처 3.43±0.48점), 전체 3.31±0.35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적응은 3.46±0.6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Degree of Sense of Humor, Stress Coping Styles,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N=160)

Variables	M±SD	Mini	Max	Range
Sense of humor	3.54±0.47	2.00	4.65	1-5
Creation of humor	3.24±0.63	1.00	4.92	1-5
Preference for humor	3.97±0.53	2.75	5.00	1-5
Stress coping styles	3.31±0.35	1.00	4.00	1-4
Aggressive coping	3.45±0.43	1.00	4.00	1-4
Problem-driven coping	3.47±0.49	1.00	4.00	1-4
Social support pursuit coping	3.43±0.47	1.00	4.00	1-4
Passive coping	3.17±0.41	1.00	4.00	1-4
Emotion-driven coping	2.92±0.55	1.00	4.00	1-4
Wishful thinking coping	3.43±0.48	1.00	4.00	1-4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3.46±0.61	1.86	5.00	1-5

Table 2. Differences of Sense of Humor, Stress Coping Styles,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nse of humor		Stress coping styles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M±SD	t/F(p) Duncan	M±SD	t/F(p) Duncan	M±SD	t/F(p) Duncan
Gender	Female	126(78.8)	3.54±0.43	0.46	3.35±0.31	2.89	3.49±0.58	0.96
	Male	34(21.3)	3.50±0.58	.648	3.16±0.46	.004*	3.37±0.71	.340
Age (yr)	<24	83(51.9)	3.51±0.43	-0.59	3.35±0.33	1.29	3.42±0.56	-0.98
	≥24	77(48.1)	3.56±0.51	.555	3.27±0.38	.200	3.51±0.65	.331
Grade	<3.0 ^a	21(13.1)	3.52±0.60	2.72	3.38±0.25	1.95	3.42±0.68	2.01
	≥3.0~<3.5 ^b	51(31.9)	3.42±0.46	.047*	3.25±0.33	.124	3.46±0.59	.115
	≥3.5~<4.0 ^c	53(33.1)	3.53±0.46	b<d	3.29±0.42		3.35±0.54	
	≥4.0 ^d	35(21.9)	3.71±0.36		3.41±0.30		3.67±0.65	
Religion	Yes	42(26.3)	3.56±0.46	0.38	3.36±0.29	0.95	3.47±0.61	0.06
	No	118(73.8)	3.53±0.47	.702	3.30±0.37	.345	3.46±0.61	.949
Economic level	High	11(6.9)	3.64±0.47	0.43	3.42±0.24	0.59	3.71±0.70	2.08
	Middle	133(83.1)	3.52±0.42	.654	3.30±0.37	.554	3.42±0.60	.128
	Low	16(10.0)	3.58±0.42		3.33±0.26		3.66±0.58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ied ^a	72(45.0)	3.69±0.44	7.59	3.38±0.27	2.96	3.80±0.53	29.80
	Normal ^b	82(51.2)	3.42±0.47	.001*	3.25±0.41	.055	3.22±0.50	.000**
	Dissatisfied ^c	6(3.8)	3.32±0.36	c<a	3.33±0.30		2.77±0.64	c<b<a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a	74(46.3)	3.67±0.44	6.43	3.37±0.28	3.40	3.82±0.54	40.46
	Normal ^b	82(51.2)	3.41±0.47	.002*	3.26±0.40	.095	3.20±0.46	.000**
	Dissatisfied ^c	4(2.5)	3.66±0.47	b<a	3.22±0.23		2.36±0.39	c<b<a
Relationship with a practicing colleague	Good	113(70.6)	3.64±0.44	4.44	3.37±0.29	3.19	3.61±0.59	5.05
	Normal	47(29.4)	3.29±0.45	.000**	3.18±0.44	.002*	3.11±0.50	.000**
Personality	Introvert	113(70.6)	3.40±0.43	-6.63	3.27±0.37	-2.27	3.36±0.60	-3.41
	Extrovert	47(29.4)	3.87±0.37	.000**	3.41±0.29	.024*	3.71±0.55	.001*

*p<.05, **p<.001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임상실습 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임상실습 적응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유머감각은 성적($F=2.72, p<.05$), 전공 만족도($F=7.59, p<.05$), 임상실습 만족도($F=6.43, p<.05$), 실습 동료와의 관계($t=4.44, p<.001$), 성격($t=-6.6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결과, 성적에서는 '4.0 이상'이 '3.0 이상 ~ 3.5 미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가 '불만족한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가 '보통이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성별($t=2.89, p<.05$), 실습동료와의 관계($t=3.19, p<.05$), 성격($t=-2.27,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임상실습 적응은 전공 만족도($F=29.80, p<.001$), 임상실습 만족도($F=40.46, p<.001$), 실습동료와의 관계($t=5.05, p<.001$), 성격($t=-3.4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 결과, 전공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가 '불만족한다'보다, '만족한다'가 '보통이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보통이다'가 '불만족한다'보다, '만족한다'가 '보통이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임상실습 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임상실습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유머감각은 스트레스 대처 방식($r=.43, p<.001$), 임상실습 적응($r=.31,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임상실습 적응($r=.39,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Correlations among Sense of Humor, Stress Coping Styles, and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N=160)

Variables	Sense of humor	Stress coping styles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r(p)	r(p)	r(p)
Sense of humor	1		
Stress coping styles	.43(.000)**	1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31(.000)**	.39(.000)**	1

* $p<.05$, ** $p<.001$

3.5 대상자의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임상실습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 성격을 포함시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기본가정 충족에 대한 검토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독립적이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1.98로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차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74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검정결과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36.98, p<.001$) 수정된 결정계수는 .40이었다. Table 4와 같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만족한다)($\beta=.34, p<.001$), 스트레스 대처 방식($\beta=.29, p<.001$), 전공 만족도(만족한다)($\beta=.23, p<.05$)로 총 변화량의 40%를 설명하였다.

Table 4. Factors Influencing i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N=16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50	.35		4.23	<.001**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_Satisfied	.42	.10	.34	4.27	<.001**
Stress coping styles	.50	.11	.29	4.62	<.001**
Satisfaction with major_Satisfied	.28	.10	.23	2.86	.005*
R ² =.42, Adj. R ² =.40, F=36.98 (p<.001*)					

* $p<.05$,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임상실습 적응의 정도를 확인하고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임상실습 적응에 대한 중재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유머감각에서 유머 생성은 중위수준,

유머에 대한 선호도는 상위수준, 전체 점수는 중위수준을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유머 생성 중위수준, 유머에 대한 선호도 중위수준, 전체 중위수준이었지만 유머에 대한 선호도가 유머 생성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Kim[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3, 4학년 학생의 유머감각의 점수가 상위수준으로 나타난 Lee, Ko와 Han[28]의 연구와 1, 2학년에서 중위수준을 나타낸 Park과 Byun[29]의 연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중위수준을 나타낸 Choi[30]의 연구와 비교할 때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의 학생의 유머감각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도 임상실습을 경험한 4학년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함으로써 유머감각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향상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요인들을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 모두 상위수준이었지만 적극적 대처가 소극적 대처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특히, 소극적 대처 중 정서 중심 대처가 중위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전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적극적 대처 중위수준, 소극적 대처 중위수준을 나타낸 Kim[11]의 연구,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서 중위수준을 나타낸 Cho, Kang과 Lim[31]의 연구와 차이를 나타냈다. 하지만 적극적 대처가 소극적 대처보다 높게 나타난 Kim[11]의 연구, 정서적 대처가 가장 낮게 나타난 Jang[3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문제중심적 대처방식과 같은 적극적 대처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소극적 대처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낮을 때 대학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것이 보고되었다[33]. 또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3학년보다 4학년에서 더 높아 다양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다[34]. 본 연구 대상자는 적극적 대처방식이 소극적 대처방식보다 높고 4학년이라는 특성상 대처방식을 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적응은 중위수준을 보였다. 이는 Kim과 Byun[17]의 연구, Baek과 Cho[1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현장실습 정서반응과 현장실습을 통한 전공이해로 구성된 임상실습 적응을 측정할 점수가 중위수준을 나타낸 Jang과 Park[19]의 연구를 볼 때 어떤 내용으로 임상실습 적응 도구를 구성해서 측정하더라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의 정도는 비슷한 점수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을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하고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4학년 때의 임상실습 적응 정도를 3학년 때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3학년 1년과 4학년 1개 교과목 정도의 실습이 이루어진 시기에 조사하였기 때문에 실습 기간에 따른 임상실습 적응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유머감각은 성적,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 동료와의 관계, 성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전공 만족에서 차이를 나타낸 Lee, Ko와 Han[2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이 즐거워져 유머감각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학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유머감각을 활용한 학습 환경 조성, 유머를 담은 교육자료 제작 그리고 전공 관련 퀴즈와 게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성적과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에 만족할수록 유머감각이 높게 나타난 Park과 Byun[29]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성격과 유머감각의 차이를 본 연구는 없어서 비교 논의하기가 어려워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실습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임상실습 시 실습동료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성별, 실습동료와의 관계, 성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외향적 성격에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더 높게 나타난 Park[3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외향적 성격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인관계에 만족할수록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높게 나타난 Jang[32]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지만 Jang[32]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문제중심의 대처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성별, 실습동료와의 관계 및 성격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상실습 적응은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실습 동료와의 관계, 성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차이를 나타낸 Kim과 Byun[17]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간호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임상실습 적응이 높게 나타난 Baek과 Cho[18]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임상실습 적응이 높았고[19]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36]를 볼 때,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격과 임상실습 적응의 차이를 본 연구는 없어서 비교 논의하기가 어려워 추후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임상실습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의 향상과 실습동료와의 원활한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대학에서의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적응은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유머감각과 임상실습 적응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전 연구가 없어서 논의에 제한이 따른다. 유머감각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Kim[11]의 연구, 일반 대학생에서 유머감각과 스트레스 및 비효율적인 대처방식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유머감각과 효과적인 대처방식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6].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임상상황의 스트레스에 대처하면서 임상실습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시 유머감각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실습교육 환경, 업무부담으로 인한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방식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37].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임상실습 적응 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적 요인과 임상실습에서 환자나 의료진과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실습교육 환경과 업무부담으로 인한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임상실습 적응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Kwon[36]의 연구, 임상수행능력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Kim과 Hwang[16]의 연구에서 볼 때 스트레스 대처 방식이 높을수록 임상실습의 적응과 관계가 있는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수행능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머감각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 간의 관계를 이해하여, 학생들의 임상실습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지원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은 임상실습 만족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 전공 만족도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전공 만족도로 나타난 Kwon[36]의 연구, 임상실습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임상실습스트레스로 나타난 Jang과 Park[19]의 연구를 볼 때 임상실습 적응에 임상실습 만족도와 전공 만족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상실습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임상실습 환경에서 더욱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유머감각,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임상실습 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결과 임상실습 적응은 전공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경우,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성격이 외향적일수록 임상실습 적응의 점수가 높았다. 또한 임상실습 적응은 유머감각과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유머를 즐기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수록 임상실습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 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고 유머감각 및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한 지역의 한 대학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고 타당성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반복 연구가 다른 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필요하다. 둘째, 대학과 임상실습 기관 간의 협력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개선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N. Seyedfatemi, M. Tafreshi, & H. Hagani. (2007). Experienced stressors and coping

- strategies among Iranian nursing students. *BioMed Central Nursing*, 6(11), 1-10.
- [2] H. S. Song & S. H. Lim. (2019).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firs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5), 533-543.
DOI : 10.21742/AJMAHS.2019.05.49
- [3] T. A. Hartigan, S. L. Cobbett, M. A. Amirault, & M. E. Muise. (2007). Nursing graduates' perception of their undergraduate clinical plac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4(1), 1-12.
- [4] H. K. Hur et al. (2004). Content analysis of the experience of preceptors in clinical education for senior studen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4(5), 859-868.
DOI : 10.4040/jkan.2004.34.5.859
- [5] B. J. Caroline, S. B. Sally, & I. V. Fiona. (2011). Empowerment and being valued: a phenomenological study of nursing student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Education Today*, 31(1), 368-378.
DOI : 10.1016/j.nedt.2010.07.008
- [6] M. S. Khoshouei. (2009). Relationship of sense of humor with stress and coping styles in university students. *Studies in Learning and Instruction*, 1(1), 87-102.
- [7] I. Park & Y. G. Ko. (2011).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ense and style of humor on their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cademic Presentation Papers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309.
- [8] P. Johnson. (2002). The use of humor and its influences on spirituality and coping in breast cancer survivors. *Oncology Nursing Forum*, 29, 691-695.
DOI : 10.1188/02.ONF.691-695
- [9] A. Cann & L. G. Calhoun. (2001). Perceived personality associations with differences in sense of humor: stereotypes of hypothetical others with high or low senses of humor. *Humor-International Journal of Humor Research*, 14, 117-130.
- [10] M. H. Abel. (2002). Humor,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Humor*, 15(4), 365-381.
- [11] K. H. Kim. (2014). Correlation of stress-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3), 301-313.
DOI : 10.5392/JKCA.2014.14.03.301
- [12] Y. H. Kwon & C. N. Kim. (2002).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13(2), 216-229.
- [13] K. Glanz & M. Schwartz. (2008).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14] K. K. Chon & K. H. Kim. (1994). An analysis of multidimensional relations between stress and copi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3(1), 136-158.
- [15] L. J. Labrague, D. M. McEnroe-Petitte, D. Gloe, L. Thomas, I. V. Papatthanasiou, & K. Tsaras. (2016). A literature review on stress and coping strategie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Mental Health*, 26(5), 471-480.
DOI : 10.1080/09638237.2016.1244721
- [16] S. M. Kim & T. Y. Hwang. (2014). Comparison of stress levels arising in clinical settings, stress coping mechanisms and clinical competency between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4), 606-616.
DOI : 10.5977/jkasne.2014.20.4.606
- [17] M. Y. Kim & E. K. Byun. (2022). Effects of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and resilience on the adapta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college stud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1), 105-113.
DOI : 10.17703/JCCT.2022.8.1.105
- [18] K. H. Baek & M. O. Cho. (2020). Effect of grit and resilience on clinical practic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6), 363-371.
DOI : 10.14400/JDC.2020.18.6.363
- [19] Y. M. Jang & Y. H. Park. (2020). Effect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 practice and self-confidence in performance of core nursing skill on nursing student's 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18(4), 77-86.
DOI : 10.22678/JIC.2020.18.4.077
- [20] K. M. Park. (2000). Clinical practice stress, social support, and field practice in nursing.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8), 49-62.
DOI : 10.22251/jlcci.2020.20.8.49
- [21] S. H. Kwon, Y. K. Kim, & M. S. Bang. (2022).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adapting to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8(1), 57-69.
DOI : 10.5977/jkasne.2022.28.1.57
- [22] J. A. Thorson & F. C. Powell. (1993).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1), 13-23.
- [23] J. S. Lee & A. M. Cho. (2006). The effects of youth's humor sense and style on stress countermeasure and health.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3(6), 79-100.
- [24] S. Folkman & R. S. Lazaru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1), 150-170.
- [25] S. H. Kim & J. O. Lee.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onents of stress coping methods and depression. *Behavioral Science Research*, 7(1), 127-138.
- [26] J. Y. Park. (199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character type A & B ego-identity and stress coping*.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s University, Seoul.
- [27] Y. J. Yi. (2007).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e-learning orient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s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9(4), 593-602.
- [28] H. J. Lee, Y. J. Ko, & S. W. Han.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e of humor, stress and depression i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7(4), 1035-1046.
DOI : 10.7465/jkdi.2016.27.4.1035
- [29] S. H. Park & E. K. Byun. (2017). Effectors of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and ego resilience on adjustment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256-264.
DOI : 10.5762/KAiS.2017.18.10.256
- [30] S. H. Choi. (2020). Effects of career motivation, humor sense, and problem-solving ability on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1(4), 109-116.
DOI : 10.5762/KAIS.2020.21.4.109
- [31] E. J. Jo, J. M. Kang, & K. M. Lim. (2017). Influence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stress coping typ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3), 94-104.
DOI : 10.5762/KAIS.2017.18.3.94
- [32] H. J. Jang. (2020). Effects of personality type, academic stress and stress coping methods on college lif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7(4), 969-985.
DOI : 10.12925/jkocs.2020.37.4.969
- [33] A. Wang, L. Chen, B. Zhao, & Y. Xu. (2006). First-year students' psychological and behavior adaptation to college: The role of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US-China Education Review*, 3(5), 51-57.
- [34] G. O. Noh. (2018). Influence of stress coping strategy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6(1), 25-34.
DOI : 10.17333/JKSSN.2018.6.1.25
- [35] J. M. Park. (2022). Effects of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styles on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 MBTI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47(1), 20-26.
DOI : 10.21032/jhis.2022.47.1.20
- [36] S. M. Kwon. (2020). Influence of self-leadership and stress coping style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4(4), 27-36.

- [37] S. Y. Lee & H. K. Kim. (2023). The effects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 knowledge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nursing students' coping with stress. *Journal of the Korean Oil Chemists' Society*, 40(3), 507-520.

강숙(Sook Kang)

[정회원]



- 2009년 8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9년 2월 : 전남 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9년 4월 ~ 현재 : 조선간호대학교 조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간호교육
- E-Mail : skang@cnc.ac.kr